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3. 고전적 모더니즘, 20세기의 첫 아방가르드들

20세기 첫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와 야수파:

20세기 첫 10년대에 2차원적 화면에 3차원적 환영을 만든 르네상스 회화전통과 대상을 보는 대로 재생산한 자연주의적 회화전통에 반대하는 일단의 미술가들이 등장. 이들의 미술은 크게 네 부류임. 첫 째는 1905년에 등장해 20세기 세기의 첫 아방가르드로 불리는 <다리파(Die Brücke)>와 야수파(Fauvism)임. 전자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Ernst Ludwig Kirchner를 포함한 네 명의 건축학도들이 결성했고, 후자는 미술비평가 Louis Vauxcelles이 파리의 "가을전"을 보고 "야수들(les fauves) 사이의 도나텔로"라고 칭했던 여자 흉상작품 주위의 Henri Matisse와 그 외 여러 화가들의 반자연주의적인 색채와 형태를 지닌 작품들임. 이들에 이어 1907년부터 Georges Braque와 Pablo Picasso가 시작한 입체파가 등장. 한편 1911년 독일 뮌헨에서 Wassily Kandinsky가 중심이 되어 <청기사> 그룹이 결성되어 전쟁 발발 전까지 유지됨. 이 미술들은 이전의 미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술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방가르드(avant-garde)로, 그리고 현대미술의 '고전'이라는 의미에서 "고전적 현대"라고 불림. 이들의 노력은 20세기 초 미술가들로 하여금 원근법을 무시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이미지에 대해 회의하게 함으로써, 르네상스 이후 4세기 동안 대상을 2차원적 화면에 3차원적 환영으로 표현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회화 개념을 변화시키도록 함.

표현주의(Expressionism):

미술사에서 표현주의는 일반적으로 각각 1905년부터 1913년 사이와 1911년부터 1914년 사이에 활동한 <다리파>와 <청기사파> 미술을 칭함. 그러나 실제로 표현주의 미술은 1920년대 중반 전쟁을 겪으면서 표현주의자들이 찬양한 인간의 주관성에 반대하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신즉물성(Die Neue Sachlichkeit)으로 불리는 자연주의 미술이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유행할 때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지속됨. 1914년 이후 표현주의 미술을 제 2세대라고 칭함. 1970년대 말 이후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 "새로운 야수들"로 칭한 미술가들이 등장. 이들의 미술은 신표현주의로 불림.

표현주의 미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연주의처럼 사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과 인상주의처럼 순간적인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사물의 본질이나 주관적인 세계를 표출하고,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눈으로 보는 세계를 그리는 자연주의나 인상주의와 같은 미술 양식이 태어난 사회의 가치 기준을 물질주의적이고 소시민적인 것이라고 거부한 점. 등장배경은 산업혁명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양상과 변화 속도에 대한 부적응.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후에는 반물질주의적 입장이 전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반군국주의적인 태도와 결합됨.

표현(expression)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마티스가 1908년 12월 『그랑 리뷰』에 기고한 「화가 노트」에서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표현이라고 칭한 것임. 마티스가 사용한 "표현" 개념이 표현주의라는

명칭으로 진전되어 처음 등장한 것은, Kurt Hiller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1911년 4월 <베를린 분리파> 전시가 시작될 때임. 이때는 Georges Braque, André Derain, Kees van Dongen(네덜란드), Raoul Dufy, Henri Manguin, Albert Marquet, Maurice de Vlaminck와 같은 프랑스 야수파 화가들(Les Fauves)과 피카소 등,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충실하게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려 했던 화가들을 표현주의자로 칭함. 1911년 12월 Paul Ferdinand Schmidt가 잡지 『라인란트(Rheinland)』에서 처음으로 van Gogh와 E. Munch의 회화와 중세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가의 주관에 의해 선택된 강한 색채와 왜곡된 형태를 지닌 독일 미술가들의 작품도 표현주의에 포함시킴.

야수파(Fauvism):

야수파는 20세기 초 파리를 중심으로 등장하여 3-4년 동안 유행한 양식으로 앙리 마티스나 드랭, 블라맹크, 마케, 망갱, 반 동엔 등과 같은 화가들이 이 양식을 대표함. 이들은 자연주의적 세부 묘사에 반대하고, 대상의 형태를 그릴 때나 색깔을 선택할 때나 눈으로 보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에 따르고자 했음.

루이 복셀이 색깔이 화려하고 풍성한 회화를 “야수”라고 부른 것은 당시까지 미술 이론을 지배하던 색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음. 살롱의 기준은 여전히 신고전주의 영향으로 대상을 강조. 색채는 선을 강조한 앵그르의 영향을 통해 “미술의 짐승적인 부분”으로 간주됨. 야수파 명칭은 한 양식을 지칭하나 이 양식으로 불리는 특이한 미술가들을 정신적으로 규합하는 통일성이 없고, 방법상으로도 미술가들 사이의 차이를 보임. 블라맹크나 반 동엔의 색채는 “야수적”이지만 색채들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 마티스나 신인상파의 기법과 색채 법칙을 이용한 드랭에게서는 그러한 특징이 덜 발견됨.

표현주의와 야수파는 주관적으로 색깔을 선택하고 형태를 변형한 것은 유사함. 그러나 야수파에게 있어 주관적인 색채와 형태가 화면 안의 조형적인 문제와 연결되었던 반면 표현주의자들에게 있어 대상을 눈이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을 거부한 미술가의 주관성, 즉 감정과 마음은 변화된 사회에 대한 미술가의 태도, 즉 세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입체파(Cubism):

1907년부터 1914년 사이 프랑스에서 George Braque와 Pablo Picasso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술운동을 지칭. 용어는 입방체를 칭하는 라틴어 cubus에서 나옴.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kybos로부터 옴. 큐비즘 명칭은 Charles Morice가 1909년 4월 16일 *Mercur de France*에 독립미술전(Salon des Indépendants)에 전시된 브라크의 회화작품들을 큐비즘을 처음 사용. 같은 해 Louis Vauxelles이 이 전시 리뷰에서 브라크의 그림 두 점을 페루인의 큐비즘이라고 칭하면서 정착. 큐비즘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시작, Juan Gris, Fernand Léger, Jean Metzinger, Albert Gleizes 등으로 이어졌고, Robert Delaunay의 큐비즘은 Orphism으로 칭해짐. 1907부터 1911, 초기입체파, 1911-12, 분석적 입체파, 그 이후 1914까지 종합적 입체파. 이 시기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등장. 이것은 오브제 미술의 시작으로 이어짐. 큐비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세잔느의 후기 작품 속의 화면 제작 방식. 1906년 사망한 그의 회고전과 근작 전시들이 1904, 1905, 1906과 1907년에 있었음. 큐비즘은 400여 년 간 서양 회화의 원칙인 1점 투시도법과 대기원근법만이 아니라 화가의 특성을 간직한 수공적인 붓 자국을 화면에서 내보냄. 화면을 형태와 선의 관계에 맞춰 구성하는 공간으로 봄. 이와 함께 배경과 형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화면에 불확정한 위치들 속에 흩어진 형태들의 불안정한 형태의 구조가 나타남. 기하학적 추상만이 아니라 20세기 여러 미술 양식과 미술가에게도 영향을 줌.